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 - ‘박경신 블로그 논란’ 사례 분석

Online news diffusion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 A case study of ‘controversy over Park Kyung Sin blog posting’

저자 (Authors)	김경모 Kim, Kyungmo
출처 (Source)	언론과학연구 12(4) , 2012.12, 35-72 (38 p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4) , 2012.12, 35-72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지역언론학회 Korea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4129
APA Style	김경모 (2012).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 <i>언론과학연구</i> , 12(4), 35-72.
이용정보 (Accessed)	아주대학교 202.30.30.*** 2017/04/27 10: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

: '박경신 블로그 논란' 사례 분석

김 경 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뉴스가 확산되면서 공중집단의 구조화에 상응해 여론 프레임이 분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박경신 블로그 논란' 이슈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뉴스의 확산 과정은 S형 곡선을 띠었다. 그러나 의견 프레임의 확산 패턴은 프레임별로 차이가 났으며, 진보와 보수 의견의 대립 구도에 중도 의견이 소수로 존재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뉴스 확산 과정에서 같은 의견 프레임 특성을 지닌 뉴스 게시물 간의 인용 경로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전파하고 토론하는 협력적 의미구성의 특징이 발견됐다. 뉴스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온라인 공중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이었다. 셋째, 확산의 결과로서 여론 프레임 지형을 구축하는 뉴스 확산 채널의 역할이 서로 달랐다. 채널 유형별로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 변용의 패턴 역시 달랐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공공 이슈를 둘러싼 온라인 뉴스 확산 과정이 공중집단의 조직화와 그 구성원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온라인 뉴스 확산, 인용 연결망, 온라인 공중, 여론 프레임, 박경신 블로그 논란

1. 문제 제기

언론매체의 전문 저널리스트는 물론 다양한 유사저널리스트(para-journalists)가 뉴스의 생산과 배포에 적극 관여하는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Deuze, 2003)에서 공공 사안을 둘러싼 뉴스는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면서 채택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온라인 뉴스는 뉴스매체와 뉴스매체, 뉴스매체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전파 경로를 통해 확산될 뿐 아니라 확산 과정에서 의미가 새롭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며 자기 진화한다(Im, Kim, Kim, & Kim, 2010).

어떤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뉴스 게시물이 맨 처음 온라인에 올라왔을 때 이 최초 뉴스를 씨앗뉴스(seed news)라는 생물학적 은유(Kim, Im, Kim, & Kim, 2008)로 포착한 뒤 시간이 경과하며 이어지는 다양한 뉴스 행위자의 뉴스 채택과 전파 행동을 분석하면 뉴스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재(再)생성되면서 여러 갈래의 집합적 의견이 분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문 뉴스매체는 물론 수많은 아마추어 뉴스 이용자가 뉴스 생산과 배포에 동참하는 온라인 뉴스 게시 활동은 공공 사안과 관련된 사실과 의견 정보를 탐색하고 인용하고 채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미 해석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일정한 의견집합들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뉴스의 온라인 전파 경로를 함축하는 개별 수준의 뉴스 게시가 확산 연결망(diffusion network)으로 구조화하면서 사회적인 집합 수준에선 특정한 시각과 의미를 공유하는 의견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뉴스가 전파되며 의미가 재구성되는 확산 경로의 연쇄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구조를 떠나는 관점(Im, et al., 2010; Krassa, 1988; Weenig & Midden, 1991)은 의견의 공유 또는 조직적 분화를 낳는 공개 토론과 대화로서 뉴스의 확산 과정이 여론 형성의 기반인 공중을 집단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한다(Price, 1988, 1992).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특정 뉴스가 확산되면서 일정한 의견집단들이 형성되고 이 같은 공중의 사회

적 구조화에 상응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의견집합들이 여론 프레임으로 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공간엔 공공 사안에 관한 정치적 토론과 대화가 발생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존재한다(Kelly, Fisher, & Smith, 2009; Wojcieszak & Mutz, 2009). 하지만 실제로 뉴스가 확산되는 자연스런 과정에 주목해 공공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온라인 공중집단이 조직되고 이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여론이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는 경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이라는 공공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연구사례로 삼아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의 문제를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뉴스 확산과 공중집단의 조직화

뉴스 확산을 분석한 전통 연구는 이론적으로, 방법적으로 여러 한계를 지닌다. 대부분의 연구는 뉴스 채택자 개인이 어떤 채널을 통해 뉴스를 인지하고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로 뉴스가 확산되는지 확산 패턴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DeFleur, 1987; Rogers, 2000; Rosengren, 1973). 이들은 뉴스가 언론매체에서 수용자에게, 또 수용자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일방 전달되는 2단계 선형모형을 가정했다. 실제로 확산되는 것은 뉴스 메시지의 의미있음에도 뉴스를 고정된 어떤 실체로 간주해 뉴스 자체가 기계적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분석방법도 채택 과정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확한 기억에만 의존하는 설문조사가 주류였다(Meyer, 2004).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뉴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고, 또 뉴스 확산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도 어렵다.

첫째, 뉴스 확산은 뉴스매체와 수용자 간의 확산 경로만이 아니라 그 역방향의 확산 관계도, 또 뉴스매체 간에도, 수용자 간에도 정보와 의미가 흐르는 전방위적(multidirectional)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뉴스가 전파되는 다양한 확산

경로의 집합은 확산 연결망으로 발현된다(Rogers, 2005; Valente, 1995, 2005). 뉴스 확산의 연결망이 어떻게 구조화되느냐에 따라 확산의 결과로서 뉴스의 집합적 의미 역시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특히 유사저널리스트를 포함해 수많은 뉴스 이용자가 뉴스의 생산과 배포에 직접 관여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의 의미구성은 전문 저널리스트의 손에 독점되지 않는다. 따라서 뉴스의 온라인 확산은 뉴스 미디어가 설정하는 의제와 프레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 의미가 분화하고 새롭게 융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 지식체계’이자 역동적인 의미 조직화의 생태학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경모, 2012).

둘째, 온라인 뉴스의 확산은 확산자와 채택자 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는 자기 진화 과정이자 뉴스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再)생성되는 뉴스의 자기 증식 현상이다(Im, et al., 2010). 실제로 뉴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뉴스 이용자의 주도로 새로운 사실 정보가 추가되고, 색다른 해석과 논평이 제기되며, 수용자의 감정이 뒤섞여 전달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뉴스의 온라인 확산은 미디어와 시민 간의 협력적 뉴스 생산 또는 능동적인 시민기자의 뉴스 참여가 활발한 온라인 저널리즘 특성이 현저하게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Bruns, 2008; Loosen & Schmidt, 2012).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의미 해석과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Gamson, 1988; Zhou & Moy, 2005)에서 뉴스의 확산은 뉴스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자 공공 이슈를 둘러싼 공론화가 복잡하게 전개되며 여론이 형성되는 현장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최초의 뉴스 게시물을 씨앗뉴스로 정의하고 확산 과정에서 뉴스의 의미와 사회적 해석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 추적함으로써 이 과정을 충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 접근은 이른바 ‘소방서 설계(firehouse design)’가 암시하듯 확산이 종료된 뒤 사후적 연구 착수에 급급한 나머지 뉴스 채택자(수용자)의 부정확한 기억에만 의존하는 서베이 조사의 방법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

으로 수용자의 인지(awareness)에 초점을 맞춰 뉴스의 채택과 확산을 정의했던 이론적 편향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뉴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직접 관찰해 분석 자료로 만들기 어려웠던 방법적 한계가 문제를 유발한 실제 원인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는 이른바 뉴스 소비자(news prosumers)의 뉴스 활동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텍스트)으로 남아 있어 확산 경과에 따른 뉴스 메시지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추적할 분석 조건이 충족된다(홍주현, 2010; Im, et al., 2010). 더욱이 뉴스매체를 포함해 다양한 뉴스 이용자가 뉴스의 생산과 배포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뉴스의 확산은 채택자 개인 수준의 인지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뉴스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뉴스 게시를 통한 확산 과정에서 스스로 일정한 규모의 공중집단으로 조직화한다. 따라서 뉴스 확산 과정을 개인의 인지적 반응 차원에서 정의한다면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되는 공중집단의 사회적 조직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뉴스 미디어가 일상의 정치적 대화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담론의 범위를 제 공함으로써 시민 간의 정치토론을 촉발하고 확장시킨다거나(Kim, Wyatt, & Katz, 1999; Wyatt, Katz, & Kim, 2000) 집단 동일시라는 사회 심리적 기제를 통해 공중의 여론 지각과 의견 형성을 돕는다(Price, 1988, 1989, 1992)는 점에서 기존의 여론 연구는 뉴스 미디어가 주도하는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강조한다. 경험 연구도 집단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의사실험 조건에서 집단성원 간의 상호작용적 반응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Price, Nir, & Cappella, 2005b; Price & Cappella, 2002). 그러나 여론 형성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공중집단이 어떤 사회적 기제를 통해 구조화되는지 보여주는 연구사례는 드물다. 뉴스 확산을 연결망으로 보는 관점은 뉴스의 온라인 확산 과정이 공공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대화와 토론을 전개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조화함으로써 공중을 조직화한다는 사회학적 기제를 바탕으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온라인 뉴스 확산을 '공공 이슈를 둘러싼 여러 경로

의 공개 토론과 대화에 담론적으로 참여하려는 뉴스 행위자들의 온라인 뉴스 게시 활동이 시간의 경과 속에 일정한 구조의 확산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再)생성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한다. 뉴스가 온라인에서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확산 연결망은 공공 이슈를 둘러싼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의견이 일정한 구조적 관계에 따라 전달되고 교환되는 사회적 통로 역할을 한다(Im, et al., 2010; Krassa, 1988; Weenig & Midden, 1991). 따라서 뉴스 확산을 통해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조형되는 확산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에 상응하는 형태로 온라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규모의 하위 공중집단으로 조직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온라인 뉴스 확산의 연결망 관점은 온라인에 최초로 올라온 뉴스기사나 게시물을 씨앗뉴스라는 생물학적 은유로 개념화하고, 씨앗뉴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내용 변화하고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지 규명하는데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뉴스의 온라인 확산에 담론적으로 참여하는 뉴스 행위자들이 뉴스 게시물의 인용 관계를 통한 공개 토론과 대화를 토대로 특정 의견을 공유하는 공중집단으로 조직되는 기제를 분석한다면 구성원들의 의견 집합으로서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2)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의 담론적 구성

전통적인 여론 연구는 대체로 여론조사의 통계수치로 여론을 이해한다(Converse, 1987).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여론 개념은 여론 형성의 필수요건으로 상정하는 공중의 정의나 공공 이슈의 성격과 이론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조화롭게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무척 많다(Herbst, 1993; Krippendorff, 2005; Price, 1992)

거의 모든 정치 여론조사는 무작위 표집에 따라 수집한 개인 의견을 집계(aggregation)한 뒤 통계처리를 통해 집단의견으로서 여론을 산출한다. 표준 통

계분석을 거친 여론 분포는 독립적인 개인 수준의 인지와 태도 또는 행동 반응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렇게 산출한 여론은 원자화된 개인 의견의 단순 집계일 뿐 공개 토론과 대화라는 담론적 참여(discursive participation)를 통해(Delli Carpini, Cook, & Jacobs, 2004; Price, et al., 2005a, 2005b) 공공 이슈의 공론화에 관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집단으로서 공중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한 사람에게 한 표’ 식의 여론조사가 전제하는 공중 모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Blumer, 1948).

여론의 대상인 공공 이슈 역시 여론조사에서 어떤 고정적 실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슈를 대하는 시민 개인의 태도와 반응만 시시때때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공 이슈는 주로 언론매체의 뉴스 보도를 통해 시민사회로 가시화된다. 이슈 자체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기도 하지만 미디어가 관련 사안을 어떻게 틀 짓느냐에 따라 해당 이슈는 다양한 해석본(interpretive version)의 의미구성으로 재등장한다(Gamson & Lasch, 1983; Gamson & Modigliani, 1989). 따라서 공공 이슈는 공론화를 거치면서 의미가 변화한다.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순환 담론의 집합이라는 것이다(Gamson, 1988). 이런 점에서 공공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구성으로서 여론 현상(Krippendorff, 2005) 역시 다변화하는 의미와 담론의 집합 또는 여론 프레임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Herbst, 1993; Price, et al., 2005a, 2005b).

무엇이 쟁점인지, 왜 공공의 관심을 쏘아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공중의 집단 속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일련의 담론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된다(Price & Roberts, 1987). 그러므로 단지 개인 의견을 모으고 요약해 편리한 통계지표로 제시한다면 여론조사의 결과 수치로서 여론 분포는 ‘미디어와 공중 정서의 복잡한 결합’ 또는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의 (속의적) 상호작용’을 통해 담론의 집합으로 재구성되는 공공의 의견이라는 여론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여론이란 미리 정해진 응답 항목에 대한 찬반(긍정/부정) 같이 고립된 개인의 단순 반응을 집계한 것이라기보다 공공 사

안을 둘러싼 의견의 사회적 교환과 공유를 통해 정합적인 이야기구조를 지닌 담론의 집합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순환 담론의 연속이다. 공공 이슈를 둘러싼 언론매체의 뉴스 보도는 특정 프레임을 통해 수용자 시민의 의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틀 짓는다(이준웅, 2005; Price, et al., 2005b). 집단 동일시 기제(Price, 1988, 1989) 등을 통해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는 시민의 반응은 여론조사로 집계되거나 다양한 담론적 참여를 통해 여론이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재구성되면서 언론매체의 뉴스 담론으로 재귀한다(Zhou & Moy, 2007). 그리고 언론의 여론 보도는 다시 공중의 토론과 일정한 담론적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Krippendorff, 2005).

뉴스의 온라인 확산은 공공 이슈를 둘러싼 시민사회 성원들의 상호작용적인 담론 반응을 시간의 경과를 따라가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의미화 과정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 이슈에 담론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공중집단의 사회적 조직화와 그 구성원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온라인 여론의 형성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연구문제 1: 온라인 뉴스의 확산 패턴에서 관찰되는 의견의 사회적 구성과 분화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 연구문제 2: 인용 관계의 집합으로부터 형성되는 온라인 뉴스의 확산 연결망은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가?
- 연구문제 3: 온라인 뉴스 확산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 프레임의 분포와 확산 채널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3.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과 자료

이 연구는 공공 이슈에 관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의견집단이 형성되고 이 같은 공중집단의 사회적 구조화에 상응해 구성원들의 의견집합이 다양한 여론 프레임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던 '박경신 블로그 논란' 이슈를 선택해 분석했다.

사건은 2011년 7월 20일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기 블로그에 방통심의위가 '음란물'로 규정했던 남성 성기사진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¹⁾ 박 위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올려 한 시민의 블로그를 폐쇄 조치한 심의위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블로그 방문자를 중심으로 댓글 논란이 벌어지자 7월 27일부터 언론 보도가 집중됐다. 7월 28일 박 위원이 명화 '세상의 기원'이 포함된 게시물을 다시 블로그에 올리자 표현의 자유와 규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견해와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비화할 조짐 가운데 7월 29일 박 위원은 청소년 열람까지 가능하게 설정했던 실수를 사과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이튿날 학부모연합단체가 박 위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난성 기사까지 올라오고, 8월 2일 건전미디어시민연대가 박 위원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확대됐다. 8월 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박 위원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정계까지 나서 논란을 언급하고 심의위 경고에 박 위원이 언론 인터뷰로 반발하는 등 공론화가 이어지다 8월 19일 관련 뉴스의 확산이 종결됐다.²⁾

주요 포털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 해당 이슈를 다룬 뉴스 게시물을 수집했

1) 2011년 7월 20일 19시에 온라인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물을 씨앗뉴스로 간주한다.
2)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신 위원에게 올해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경향신문 2012년 7월 13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012년 10월 18일자).

다. 박경신 블로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검색어 조합으로 1,623건의 뉴스 게시물을 추렸다. 사이트 유형별로 전통매체 뉴스 151건(9.30%), 온라인매체 뉴스 165건(10.16%), 포털사이트 뉴스 722건(44.49%), 시민 블로그 포스팅 577건(35.55%), 기타 사이트 게시물 8건(0.49%)이었다. 온라인 뉴스 확산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수집된 뉴스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 순으로 정렬한 뒤 연결망 분석과 프레임 분석 그리고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2) 분석방법

(1) 연결망 분석

뉴스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자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분석대상 뉴스 게시물 간의 인용 관계와 그로부터 발현하는 연결망 구조를 파악했다. 뉴스의 온라인 확산 경로는 뉴스 게시물 간의 내용 인용(citation/scrapping), 하이퍼링크(hyperlink), 또는 댓글 관계 등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임성환·김상욱·박선주·이준호, 2009; Agarwal & Liu, 2009; Tsagkias, de Rijke, & Weerkamp, 2011). 이 연구는 게시물 간의 내용 인용과 하이퍼링크라는 관계의 집합(set of relations)으로부터 형성되는 인용 연결망의 구조에 주목해 사실과 의견 정보의 확산 경로를 추적했다. 연결망 분석을 위해 내용의 인용은 뉴스 게시물 간의 동일(유사) 문장의 중복 정도로, 또 하이퍼링크는 링크걸기를 통해 연결된 뉴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조작 정의했다.

문서 간의 동일 문장 중복과 유사성 정도를 찾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³⁾을

3) 문서 간의 유사성을 검색하는 와이즈넷 솔루션(WISE Referee, www.wisenut.com)을 이 연구의 목적에 응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프로그램은 두 문서 간의 동질성 여부를 문장 단위로 분석해 추출하는데, 동일 또는 유사 문장이 전혀 겹치지 않는 정도(0%)부터 완전히 겹치는 경우(100%)까지 중복 정도를 계측한다. 이 연구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대략 20% 이상의 중복 판정이 나면 인용 관계로 간주했다. 최종적으로는 뉴스 게시물의 프레임 요소와 관련해 의미 있는 문장이 서로 겹치면 1, 전혀 겹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했다. 내용의 인용이 연결 관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하이퍼링크를 통한 확산은 극소수(전체 연결 관계의 1.85%)에 지나지 않았다. 응

이용해 모든 뉴스 게시물 간의 인용 경로를 찾아냈다. 뉴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산된다. 따라서 뉴스 게시물 사이의 인용 관계는 한 방향성만 띠므로 비대칭 비순환 행렬(asymmetric acyclic matrix)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행렬의 구성은 인용(또는 하이퍼링크)을 통한 뉴스의 확산 경로를 보여주는 연결망 구조를 의미한다. 쌍을 이루는 두 게시물 사이에 인용 관계가 발견되면 1, 발견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1623 × 1623 행렬자료를 연결망 프로그램 *Pajek* (Nooy, Mrvar, & Batagelj, 2005)으로 분석했다. 확산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와 특성을 살피기 위해 개별 게시물, 양자 관계, 하위 시스템 등 여러 분석 수준에서 주요 연결망 지수를 산출하거나 연결 관계의 동질성 검증 또는 하위 집단화의 속성을 검토했다.

(2) 프레임 분석

개인 의사를 집계한 여론조사 수치를 여론의 실체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는 공공 사안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의미구성 과정으로서 여론 현상(Gamson, 1988; Krippendorff, 2005; Price, 1992)에 충실하고자 여론 프레임으로 여론을 정의한다(Price, et al., 2005b). 여론의 실체로서 여론 프레임이란 공공 이슈를 둘러싼 뉴스의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속의를 거치면서 내적 일관성을 갖춘 이야기로 구조화된 의미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통계수치가 아닌 담론의 집합으로 가시화되는 여론(Herbst, 1993)을 포착하기 위해 엔트만(Entman, 1993)이 강조한 프레임 구성의 상징장치(사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와 책임귀인, 해결책 제안)에 기초해 전체 뉴스 게시물을 대상으로 여론 프레임을 추출했다.

먼저, 수집된 게시물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상징장치별로 함축하는 의미가 독립적인 대표 진술(문장)을 찾아냈다. 그 다음, 프레임 요소에 따라 이 문장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해석 집합(interpretive package)을 조합해 정합

용 프로그램 사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애써준 연세대학교의 김원정 박사께 감사한다.

적인 이야기줄거리(storyline)를 재구성하고 핵심 주제(main theme)를 포착하는 내러티브 프레임 분석(김경모·정은령, 2012)을 실시했다.⁴⁾ 분석 결과, 각자 일정한 내러티브 완결성을 지닌 ①심의위원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 ②방통심의위원의 기준 비판 프레임 ③표현의 자유 제한 항의 프레임 ④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을 추출했다. 이들은 온라인 뉴스 확산의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당 이슈 전체를 관통하며 집합 수준에서 발견된 여론 프레임의 유형을 말한다(각각의 자세한 의미구성은 <부록>의 여론 프레임 유형을 참고).

(3) 내용분석

개별 뉴스 게시물을 분석단위 삼아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다. ‘게시시간(time of posting)’은 해당 게시물이 처음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시간을 말한다. 최초 씨앗뉴스를 기점으로 해당 게시물이 올라올 때까지 경과한 시간(hour)을 환산해 기입했다. ‘내용 변용’은 씨앗뉴스와 대비해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개별 뉴스 게시물의 내용이 변화한 양상을 말한다. 씨앗뉴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 정보의 추가, 색다른 해석과 논평의 구성, 개인적 감정의 표출로 하위 변인을 구성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뉴스의 변화 여부를 파악했다. 뉴스 게시물에서 해당 요소가 나타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했다. ‘사이트 유형’은 뉴스의 온라인 확산 채널을 말한다. 전통매체, 인터넷매체, 포털, 블로그, 기타로 세부 항목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4) 내러티브 프레임 분석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상징장치를 귀납적으로 찾아내 이를 내러티브 함수로 설정한 다음 해석 집합으로서 내러티브 완결성을 갖춘 독자적인 프레임을 연역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론적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귀납적으로 찾아낸 상징장치를 의미론적으로 조합하는 대신 프레임의 필수 요소로 엔트만이 언급한 상징장치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해석 집합을 구성했다. 저널리즘의 정형화된 글쓰기 관행을 따르는 언론매체의 뉴스기사와 자유롭고 개성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는 시민 블로그 포스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상징장치(프레임 요소)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뉴스 게시글에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상징장치만으로 해석 집합을 구성해 여론 프레임 간의 의미 비교가 가능하도록 엔트만의 제한을 따랐다.

유형'은 개별 뉴스 게시물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의견 프레임에 말한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해당 뉴스 게시물이 네 가지 여론 프레임 가운데 어느 것과 주제 측면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판별해 개별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으로 측정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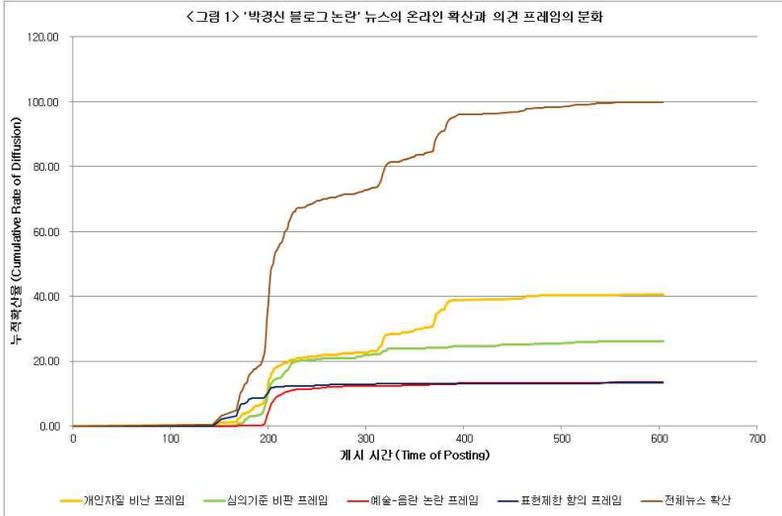
내용분석 연구 참여 경험이 풍부한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세 명이 훈련을 거쳐 코딩에 투입됐다. 200개 게시물을 무작위로 선택해 산출한 최종 코더 간 신뢰도(크리펜돌프 알파)는 정보 추가 .95, 해석 논평 .96, 감정 표출 .82, 프레임 유형 .89로 모두 신뢰할 수준이었다. 기계적 코딩을 한 게시시간, 사이트 유형은 따로 신뢰도를 재지 않았다.

4. 분석 결과

1) 뉴스 게시물의 온라인 확산과 의견의 사회적 분화

<그림 1>에서 보듯 전체 뉴스의 확산 과정은 S형 곡선을 따른다.⁶⁾ 박경신

-
- 5) 따라서 의견 프레임은 개별 게시물 수준의 주장(의견의 주제)을 말하고, 여론 프레임은 뉴스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 수준의 공론이 지닌 의미론적 이야기구조(narrativity)를 말한다. 개별 게시물 수준의 의견 프레임은 한 두 개의 상징장치를 사용하는데 그치므로 해석 집합으로서 내러티브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여론 프레임은 공개 토론과 대화로서의 뉴스 확산 과정에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모든 상징장치를 포섭하면서 해석 집합의 형태를 완성해가기 때문에 집합 수준에서 조직되는 내러티브 완결성을 지닌다. 개별 수준의 의견 프레임이 확산 과정의 의미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담론의 집합이라는 집단 수준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자기 완결적인 여론 프레임이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토의 모형(discursive model)으로 여론 형성을 개념화하는 것(Price, 1988, 1992)과 유사하다.
- 6) S형 확산 패턴은 복합 확산 모형(mixed influence model of diffusion)으로 설명 가능하다. 내부 영향력 요인과 외부 영향력 요인이 함께 확산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혁신(innovation)과 관련된 기채택자와 잠재적 채택자 사이의 대인 채널은 채택을 이끄는 내부 요인에 해당한다. 반면, 매스 미디어 채널 같은 외부 요인은 많은 잠재적 채택자를 한꺼번에 혁신에 노출시킴으로써 임계집단(critical mass)의 형성을 통해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Barnett, 2011). 온라인 환경의 뉴스 확산에서 내부 요인은 뉴스 게시물 간의 인용(또는 하이퍼링크) 관계



위원의 블로그에 최초 게시물(씨앗뉴스)이 등장하자 댓글을 통한 논란은 일부 있었으나 실제로 뉴스 확산이 촉발된 시점은 152시간이 지난 뒤였다. 인터넷의 댓글 논란을 감지한 몇몇 온라인신문이 이를 뉴스로 다뤄 의제설정에 나서자 포털의 뉴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련 소식이 급속도로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반영하듯 확산 초기부터 개별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이 분화하기 시작했으며, 확산 속도 역시 의견 프레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확산 초기에는 보수 시각의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과 진보 시각의 표현제한 항의 프레임의 뉴스 게시물이 경쟁적으로 전파됐지만 명화 ‘세상의 기원’을 올린 박경신 블로그의 2차 게시물을 계기(192시간 경과)로 진보 시각의 뉴스 게시물은 심의기준 비판 프레임으로 대체되며 보수-진보 간의 의견 대립 구도가 지속됐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며 박 위원 2차 게시물이 올라올 무렵 일반 시민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전에는 없던 중립 시각의 예술

로, 그리고 외부 요인은 급격한 뉴스 확산을 가능케 하는 포털의 역할로 대체해 볼 수 있다.

vs 음란 논란 프레임이 재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이다. 언론매체에서 먼저 시작된 다른 유형과 달리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은 블로그 포스팅에서 먼저 등장(180시간 경과)했는데 전통매체와 인터넷매체의 기사에서는 이보다 더 늦은 시점(196시간 경과)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차지만 시민들의 온라인 토론이 미디어 의제의 프레임 속성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역(逆)속성의제설정(reversed second-level agenda setting) 사례로 볼 수 있다.

2차 변곡점(second point of inflection)에 도달하는 확산 후기(227시간 경과)에 이르면 개인자질 비난 이외 다른 의견 프레임의 확산은 대체로 소강상태로 들어간다. 다만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의 경우, 한 보수시민단체가 박경신 위원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발생시점(313시간 경과)에서, 또 방통심의위가 박경신 위원에게 공개 경고를 내린 시점(369시간 경과)에서 각각 이를 반영하는 뉴스 게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 증폭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후부터 아주 드물게 이슈 관련 뉴스가 올라오다 씨앗뉴스 발생 722시간 만에 확산이 완전히 끝났다.

결과적으로, 뉴스 확산 과정에서 관찰되는 의견 프레임의 비중은 개인자질 비난 40.6% (659건), 심의기준 비판 25.8% (418건), 예술 vs 음란 논란 13.7% (222건), 표현제한 항의 12.5% (216건)의 순이었다.⁷⁾ 보수와 진보 간의 팽팽한 갈등 구도 가운데 중도가 소수를 차지하는 의견 프레임의 집단적 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뉴스의 확산을 통해 공공 이슈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전개되며 온라인 시민사회에서 사태 의미의 지배적 해석(hegemonic interpretation)을 향한 프레임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 공공 사안을 둘러싼 의미가 이처럼 논쟁적으로 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지 그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주제 분석을 하더라도 뚜렷한 의견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는 개별 게시물 108건(6.7%)은 '기타'로 처리했다. 하나의 주장으로 주제가 압축되지 않고 여러 관점의 이야기가 혼재해 정치적 부동성(political ambivalence)이 관찰되는 게시물이거나 단순 정보를 나열한 건조한 사실보도 또는 합리적인 주장을 담지 않은 낙서 수준의 블로그 포스팅이 대부분이었다.

2) 뉴스 확산을 통한 의견 연결망의 형성과 온라인 공중집단의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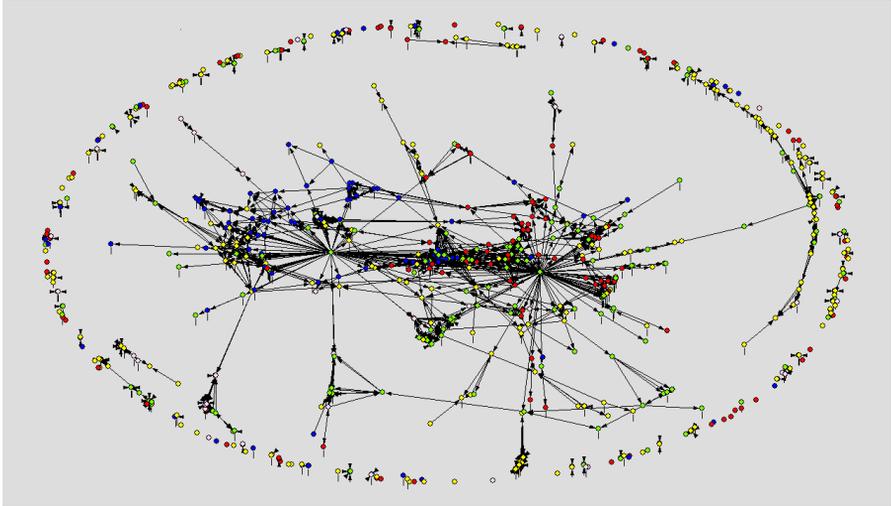
뉴스 게시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동일(유사) 문장의 인용(또는 하이퍼링크) 관계는 뉴스 이슈를 둘러싼 특정 의미와 관점이 확산되는 경로이기도 하지만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치 토론과 대화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림 2>는 박경신 블로그 논란을 다룬 온라인 뉴스 확산의 인용 연결망 구조를 보여준다.⁸⁾ 1,493건의 뉴스 게시물이 인용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몇 개의 큰 구성집단(components)을 이루고 있는데, 인용 연결망에 포섭되지 않은 고립자(isolates)로 밝혀진 뉴스 게시물도 130건⁹⁾이었다. 타원형 내부의 초점 부근에 위치한 두 개의 뉴스 게시물은 모두 박경신 블로그의 포스팅으로 각각 씨앗뉴스(왼쪽)와 2차 게시물(오른쪽)이다.

연결망 그래프에 따르면 씨앗뉴스를 중심으로 뉴스가 확산된 초기에는 개인자질 비난과 표현제한 항의 프레임의 뉴스가 집중적으로 전파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차 게시물 이후 표현제한 항의 프레임은 확산 범위가 제한되며 전파 속도가 늦춰지고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과 함께 심의기준 비판과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이 재빠르게 확산되는 경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확산 연결망의 구조화가 보여주듯 뉴스의 온라인 확산은 기계적 전파와 거리가 멀다.

8) 프루트만과 라인골드(Fruchterman & Reingold, 1991)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결망 그래프에서 결점(node)은 개별 뉴스 게시물들, 연결선(link)은 두 게시물 사이의 인용(또는 하이퍼링크) 관계를, 화살표 방향은 뉴스의 확산 방향을 가리킨다. 뉴스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을 확인하도록 해당 결점을 색깔로 구별했다(노랑: 개인자질 비난, 연두: 심의기준 비판, 파랑: 표현제한 항의, 빨강: 예술 vs 음란 논란).

9) 뉴스 문장의 인용이나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지 않은 뉴스 게시물들은 연결망 그래프에서 타원형의 둘레에 고립자로 퍼져 위치한다. 고립자의 절대다수(123건, 94.6%)는 블로그 포스팅이었다. 이들은 관련 뉴스기사나 블로그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지식을 동원한 글쓰기 방식으로 해당 이슈를 둘러싼 논란에 참여하는 주의 깊은 쟁점 공중(attentional issue publics)의 게시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크기가 작은 수많은 군소 구성집단들도 타원형의 둘레에 함께 위치해 있다.

〈그림 2〉 온라인 뉴스 확산의 연결망 구조와 의견집단의 사회적 조직화



의견 프레임 범례: ● 개인자질 비난 ● 심의기준 비판 ● 표현제한 항의 ● 예술-음란 논란

〈표 1〉 의견 프레임 간 확산 관계(dyadic level)의 분포와 여론 프레임의 발현

확산자(행) → 채택자(열)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	심의기준 비판 프레임	표현제한 항의 프레임	예술-음란 논란 프레임	기타	계
개인자질 비난	.405	.021	.026	.004	.008	.464
심의기준 비판	.022	.150	.031	.030	.006	.239
표현제한 항의	.020	.020	.104	.005	.003	.151
예술-음란 논란	.005	.016	.005	.073	.001	.101
기타	.002	.005	.000	.001	.037	.045
계	.454	.213	.166	.113	.055	1.000

인용 연결망 구조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은 주로 같은 의견 프레임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의견집단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표 1>은 양자 관계 수준(dyadic level)에서 의견 프레임 간의 연결 관계가 어떤 확률 분포를 지니는지 보

〈표 2〉 의견 프레임 집단 내 연결 관계의 동질성 검증

	Baseline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Edges	-5.67*** (0.01)	-6.32*** (0.02)	-6.72*** (0.10)	-8.11*** (0.62)
Triangles		0.22*** (<0.01)	0.23*** (<0.01)	0.22*** (0.05)
Node Effect of Frame2			0.36* (0.14)	0.82 (0.47)
Node Effect of Frame3			0.29 (0.16)	0.68 (0.82)
Node Effect of Frame4			0.16*** (0.01)	0.72*** (0.03)
Node Effect of Frame5			0.52*** (0.01)	0.59*** (0.07)
Reciprocity b/ Nodes in Frame1				2.15*** (0.01)
Reciprocity b/ Nodes in Frame2				1.04*** (0.02)
Reciprocity b/ Nodes in Frame3				1.85*** (0.03)
Reciprocity b/ Nodes in Frame4				1.60*** (0.02)
Reciprocity b/ Nodes in Frame5				3.09*** (0.13)
Goodness-of-Fitness				
AIC	120241	104638	104815	96892
BIC	120254	104663	104892	97032
-2Log-Likelihood	120239	104634	104803	96870
Deviance test		15605***(df=1) against Baseline Model	Not possible against Model 1	7764*** (df=9) against Model 1 7934*** (df=5) against Model 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프레임1: 개인자질 비판, 프레임2: 심의기준 비판, 프레임3: 예술-음란 논란, 프레임4: 표현 제한 항의, 프레임5: 기타
- R의 통계자료실(Statnet library)을 이용해 지수 무작위 그래프 모형(ERGM)의 계수를 추정.

여준다. 같은 의견 프레임 간의 연결 관계가 전체의 73.2%를 차지(기타는 제외)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 프레임 간의 연결 관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낮은 빈도(0.4-3.1%)를 보인다. 특히 주대각선(main diagonal) 요소의 월등한 비율 분포(7.3-40.5%)를 고려할 때 의견 프레임 간의 인용 관계가 보여주는 분포는 뉴스 확산 과정이 같은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도록 통로화 함으로써 이를 정합적인 이야기로 구성해가는 의견집단의 형성과 분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단 구성의 형상화에서 드러나듯 뉴스의 온라인 확산에 내재하는 인용 관계의 집합적 성격은 서로 다른 의견 간의 토론(cross-cutting discussion)을 이

끌기보다 유사한 주장과 견해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의견집합의 연결망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는 인용 관계를 통해 미디어 담론과 시민 담론이 연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공 이슈를 둘러싼 온라인 여론(여론 프레임)을 사회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Gamson, 1988)을 보여준다.¹⁰⁾

연결망 구조의 시각화를 바탕으로 한 이상의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자 지수 무작위 그래프 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p^*) model)을 적용해 연결 관계의 발생을 통계 검증했다(Monge & Contractor, 2003; Shumate & Palazzolo, 2010). <표 2>의 결과는 같은 의견 프레임을 공유하는 연결 관계의 동질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온라인 뉴스 확산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모형 3). 이는 동질적 연결 관계를 통해 <표 1>의 주대각선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의견집단들이 경쟁적으로 분화하면서 형성됐다는 앞의 설명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른바 유사상종 원리(homophily principle)가 작동한 것이다.¹¹⁾ 온라인 확산을 통한 정보와 의견의 사회적 전파가 같은 의

10) 응답자 개인의 반응을 집계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뉴스 확산 연구나 여론 연구는 분석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인 행위자 기반 모형(ABM: agent-based model)을 전제한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텍스트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메시지 기반 모형(MBM: message-based model)을 따른다. 반(半)의명성과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사람(agent)이라기보다 뉴스 게시물이라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정한 신원 특성(profile)을 지닌 사람(조직)이겠지만 의견집단 또는 하위 공중집단의 구성원은 온라인에서는 대개 정체가 가려진 채 그들이 올린 뉴스 텍스트 간의 연결(인용) 관계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구성된 의견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이런 관점에서 같은 의견 프레임을 지닌 뉴스의 확산 경로를 보여주는 <표 1>의 주대각선 요소는 공개적인 정치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의견집합으로서 하위 공중집단의 구조화이자 사회적 수준에서 여론 프레임이 발현되는 과정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채널 속성 또는 기사작성 방식의 유사성이 뉴스 게시물 사이의 인용 관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인용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가 과연 채널 속성이나 저널리즘 관행의 유사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자 확산 채널 유형 간의 인용 관계 패턴을 양자 관계 수준에서 통계 검증했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 간의 인용 관계만 유의미했다(coefficient=.08, sd=.02, $p<.001$). 따라서 의견의 유사성이 경쟁적으로 확산을 추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 관계의 집합적 성격은 동질적인 의견 간의 교환과 소통에 바탕을 둔 의견 연결망인 것이다.

견 프레임의 집단화로 나타나는 것은 뉴스 확산 과정이 하위 공중집단의 조직화와 이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여론 프레임이 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약한 구성집단의 의견 프레임 속성 (단위: 집단 수)

구성집단 규모	구성집단 수 (total node)	단일 프레임 집단					혼합 프레임 집단
		심의위원 자질 비난	심의기준 비판	표현제한 향의	예술-음란 논란	기타	
10 이하	84(335)	33	20	7	7	8	7
11 - 50	6(122)	2					4
50 - 100	2(140)						2
101 이상	1(896)						1
계	91(1493)	35	20	7	7	8	14

주: 혼합 프레임 집단은 서로 다른 의견 프레임을 지닌 구성원(게시물)으로 이뤄진 구성집단을 말함.

양자 관계 수준의 분석 결과는 하위 시스템 수준(sub-system level)에서도 일정부분 재확인된다. 인용 연결망의 구조 분화를 하위 집단화 수준에서 검토하고자 연결성(connectivity)에 기초한 구성집단 분석(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두 91개의 약한 구성집단(weak component)을 추출했다(고립자 제외).¹²⁾ <표 3>은 구성집단의 규모(node size)별로 집단의 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규모의 급간별로 해당 구성집단의 의견 프레임 속성은 어떤 집합적 특징을 지니는지 요약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소규모 구성집단의 경우 전체 84개 가운데

12) 비대칭성과 비순환성이라는 확산 연결망의 관계 속성(relational attributes)을 고려해 구성원이 서로 겹치지 않는 하위 응집집단(cohesive sub-group)을 추출하고자 약한 구성집단 분석을 실시했다(Wasserman & Faust, 1994). 하위 시스템 수준의 분석에 따르면, 확산 연결망은 매우 큰 구성집단(1)과 중간 규모의 구성집단(8) 그리고 수많은 소규모 구성집단(84)으로 구조화되므로 전체적으로 매우 성기고 분절적인(sparse and disconnected)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77개 집단(91.7%)이 오직 같은 관점과 주장만을 공유하는 단일 의견 프레임의 집단적 배타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단일 프레임 구성집단 가운데 개인자질 비난 집단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다른 의견 간의 교류를 허용하는 집단적 이질성을 지닌 혼합 프레임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아 확산 연결망이 서로 다른 의견 간의 교환과 대화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¹³⁾

결론적으로, 뉴스 확산 과정에서 유사한 프레임 특성을 지닌 뉴스 게시물 간의 내용 인용 경로를 통해 공공 이슈를 둘러싼 특정 정보와 의견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협력적인 의미구성의 특징이 발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확산은 비슷한 생각과 주장을 표명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의견집단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확산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는 담론적 참여를 통해 공공 이슈에 관여하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하위 공중집단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조직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준다. 같은 의견 프레임의 집단적 공유를 바탕으로 공중집단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뉴스의 온라인 게시 활동으로 공공 이슈의 공론화에 참여하는 온라인 공중집단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여론(여론 프레임)을 형성하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Price, 1988, 1989, 1992; Price & Roberts, 1987).

13) 전체 게시글의 55.2% 차지하는 가장 큰 구성집단과 기타 구성집단 전체의 의견 프레임 분포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성집단(28.7%)일 때와 기타 구성집단 전체(59.8%)일 때 뚜렷한 차이가 난다. 여러 관점이 충돌하고 논쟁을 벌이는 의견 개방적인 큰 구성집단에서 보수 의견 프레임의 비중이 훨씬 더 낮은 이 결과는 온라인에서 보수 의견집단의 고립된 속의 또는 집단극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Conover, Ratkiewicz, Francisco, Gonçalves, Flammini, & Menczer, 2011; Yardi & Boyd, 2010). <표 2>의 모형 3이 보여주는 계수(coefficients)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표> 약한 구성집단의 재유형에 따른 의견 프레임 비중 (단위: %)

집단 재유형화	개인자질 비난	심의기준 비판	표현제한 항의	예술-음란 논란	기타
큰 구성집단(896)	28.7	33.0	18.1	14.7	5.5
기타 구성집단(597)	59.8	18.4	6.4	6.9	8.5
전체 (1493)	40.6	25.8	12.5	13.7	6.7

3) 여론 분포의 특성과 뉴스 확산 채널의 역할

박경신 블로그 포스팅을 계기로 촉발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 문제는 관련 뉴스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전개로 나타났다.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 시민사회의 여론 지형은 프레임 경쟁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지배적 해석의 주도권을 다투는 대립 속에 중도 시각이 소수 의견으로 존재하는 분화 구도를 보인다. 뉴스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론 프레임들이 동등한 비율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로의 채널을 통해 확산이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서 확산 패턴은 사뭇 다르다(Barnett, 2011; Rogers, 2003). 따라서 뉴스 확산의 결과로 발현된 여론 프레임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뉴스의 온라인 확산 채널에 주목해 이 같은 여론 분포의 특징을 살펴봤다.

<표 4>는 온라인 여론의 형성 창구로서 뉴스 사이트 유형과 사이트별로 주로 전파된 의견 프레임의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반영하는 듯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이 뉴스매체는 대체로 이념 갈등의 틀로써 해당 이슈를 공론화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매체와 포털 사이트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 대립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뉴스를 확산시키는 특징을 보였다.¹⁴⁾ 시선을 끄는 것은 다른 확산 채널에 비해 블로그의 포스팅을 통해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이 전파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블로그의 포스팅이라고 하더라도 확산 과정의 인용 연결망에 포섭된 연결자(component members)이 아니면 고립자이냐에 따라 프레임 분포는 확연하게 달랐다.¹⁵⁾ 연결자일 때 의견 프레임 분포는 전문 뉴스매체와 유사한 패턴

14) 의견 프레임 전파와 관련해 확산 채널의 다양성 지수(Simpson's D)를 살폈을 때 블로그 .752, 전통매체 .716, 포털 .705, 온라인매체 .661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블로그가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의견 프레임을 전파하는 확산 채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D = 1 - \sum p_i^2$, 여기서 p_i 는 각 의견 프레임 빈도의 비율).

을 보였지만 고립자일 경우 심의기준 비판의 빈도가 훨씬 낮고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의 빈도가 월등한 차이가 드러났다. 뉴스매체가 해당 이슈를 주로 정치 갈등의 시각에서 다루는데 반해 이와 연계되지 않은 상당수의 시민 블로그는 중도 입장에서 논란에 참여하는 뉴스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을 말한다.

<표 4> 사이트 유형에 따른 뉴스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 빈도 (단위: %)

	개인자질 비난	심의기준 비판	표현제한 항의	예술-음란 논란	기타
전통매체	44.7	20.5	12.6	13.2	9.3
온라인매체	47.9	30.3	10.9	5.5	5.5
포털	42.8	28.9	12.3	8.2	7.8
블로그	34.8	21.7	15.4	23.2	4.9
기타	37.5	37.5	12.5	0.0	12.5
전체 (1623)	40.6	25.8	12.5	13.7	6.7

주: 확산 채널의 '기타'는 8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율의 값은 별 의미가 없다.

온라인에서 뉴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채널 유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주요 연결망 지수를 산출했다(Wasserman & Faust, 1994). 뉴스 확산의 측면에서 내향 중앙성(indegree centrality)은 해당 뉴스 게시글이 다른 관련 뉴스를 정보와 의견의 원천(source)으로 삼아 다양하게 인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같은 의견을 표명하는 여러 뉴스 사례를 빈번하게 인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에 노출된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외향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은 해당 뉴스를 많은 후속 게시물들이 인용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의 공신력 또는 의제설정의 파급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해당 뉴스 게시글이 다른 의견집단 간

15) <표> 블로그 포스팅의 연결망 위치에 따른 의견 프레임 빈도 (단위: %)

	개인자질 비난	심의기준비판	표현제한 항의	예술-음란 논란	기타
블로그 연결자(454)	35.2	25.1	16.1	18.7	4.8
포스팅 고립자(123)	33.3	8.9	13.0	39.8	4.9
전체 (577)	34.8	21.7	15.4	23.2	4.9

의 인용 관계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는 정도를 뜻한다. 뉴스 확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넘나드는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인용 가중치(citation weights)는 인용 관계 같이 시간적 비순환성을 띠는 연결망 구조에서 해당 결점이 인용의 연쇄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의견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뉴스 게시글일수록 인용 가중치가 높다. 따라서 인용 가중치가 높은 뉴스 게시글은 의견집단 내에서 의견 결속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향 인접 중앙성(indegree closeness centrality)과 외향 인접 중앙성(outdegree closeness centrality)은 둘 다 연결망 전체(global) 범위에서 다른 뉴스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게시글로부터 인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두 지수는 국지적(local) 범위에서 연결정도를 의미하는 내향 중앙성과 외향 중앙성에 각각 대비되는데, 이들과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내향 간: $r=.913$, 외향 간: $r=.963$, 모두 $p<.01$).¹⁶⁾ 따라서 여기에선 따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

<표 5> 뉴스 확산 채널별 주요 연결망 지수(평균) (node n=1493)

	내향 중앙성	외향 중앙성	사이 중앙성	인용 가중치	내향인접 중앙성	외향인접 중앙성
전통매체	4.90	10.03	.000856	.0353	.0039	.0070
온라인매체	4.26	5.38	.007128	.0062	.0036	.0043
포털	5.91	6.68	.002899	.0235	.0047	.0051
블로그	7.36	4.04	.010232	.0036	.0062	.0035
기타	1.75	3.38	.000188	.0000	.0018	.0025

<표 5>는 개별 뉴스 게시글 수준에서 산출한 연결망 지수를 확산 채널(사이트)별로 유형화한 평균점수로 제시한 것이다(고립자 제외). 뉴스 확산을 통해 의견 연결망이 형성되며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통매체 사이트의 뉴스는 상대적으로 외향 중앙성이 제일 높은 반면 블로그의 포스팅은 내향 중앙

16) 이처럼 매우 높은 상관관계는 약한 구성집단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체 확산 연결망(whole diffusion networks)이 성기고 분절적인 구조적 성질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이 가장 높았다. 공신력이나 의제 파급력은 여전히 전통매체의 뉴스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산 과정에서 뉴스 당 평균 10번의 피인용 사례를 보였다. 그에 비해 블로그의 포스팅은 게시물 당 평균 일곱 번 정도로 가장 빈번하게 다른 뉴스 게시글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관점의 의견을 반영하며 다른 의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¹⁷⁾

사이 중앙성 역시 블로그의 포스팅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통매체 뉴스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뉴스가 확산되며 온라인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블로그가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소통시키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전통매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일치하는 특정 의견만을 계속 확산시키는 채널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인용 가중치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통매체 뉴스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인용 가중치를 보인 반면 블로그의 포스팅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이념의 좌우에 상관없이 의견집단 내의 여론 형성에는 전통매체가 의제설정 능력을 바탕으로 의견 결속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용 연결망에서 특정 의견을 전파하기 용이한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블로그의 경우, 의견집단 간의 연결 관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견해의 전달과 상호 노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의견집단 내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스팅은 드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블로그 포스팅의 27.1%가 인용 연결망에 포섭되지 않은 고립자이고, 또 전체 포스팅의 23.2%는 상대적으로 의견 결속이 떨어지는 중립적인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¹⁸⁾

17) 블로그의 내향 중앙성과 인용가중치 평균 점수는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 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심의위원 자질 비난 7.53/.0098, 심의기준 비판 6.71/.0004, 표현제한 항의 7.77/.0001, 예술 vs 음란 논란 7.33/.0001, $F=.782/.465$, 모두 $p>.05$). 확산 채널로서 블로그의 사이 중앙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블로그 포스팅이 자기와 같은 의견 프레임을 보이는 뉴스 게시물만을 집중 인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온라인매체와 포털 사이트는 뉴스 확산 과정에서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매체 뉴스의 경우 사이 중앙성은 비교적 높았지만 인용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반대로 포털 사이트 뉴스의 경우 사이 중앙성은 낮은 편인데 인용 가중치는 아주 높았다. 분석대상 이슈에 국한할 때, 일반의 생각과 달리 포털 사이트는 다른 의견 간의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 데 그리 성공적인 채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온라인매체가 의견집단의 의견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실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창구였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표 6> 씨앗뉴스 대비 내용 변용 정도

	내용 변용 (%)		
	정보 추가	해석 논평	감정 표출
전통매체	99.3	13.9	3.3
온라인매체	100.0	24.2	10.9
포털	0.1	0.1	0.0
블로그	94.6	33.4	28.9
기타	100.0	37.5	0.0
전체(1623)	53.6	15.9	11.7

마지막으로, 뉴스 확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내용 변용이 일어났는지 분석했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확산 채널의 사이트 유형에 관계없이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관련 뉴스가 확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색다른 해석 논평이나 개인적 감정 표출은 사이트 유형에 따라 달랐다. 저널리즘의 기사작성 관행에 비교적 엄격한 전통매체 뉴스에서 해석 논평과 감정 표출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온라인매체 뉴스는 비교적 높았다. 반면 글쓰기 방식

18) 이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메아리방(online echo chamber) 문제와 여론 형성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한다. 분석 결과는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의 확산에서 관찰된 연속성의제설정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민 블로그의 의견 프레임이 전통매체 뉴스에 토론 용어와 담론 범위의 기원을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언론의 중요성(이준웅, 2005; Price, 1988, 1992)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의 제약이 거의 없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해석 논평과 특히 감정 표출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 차이가 여론 프레임의 지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연구의 분석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후속 연구가 밝혀야 할 부분이다.

5. 요약과 논의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뉴스의 확산 과정은 전체적으로 S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뉴스 게시물의 의견 프레임을 고려했을 때 여론으로 공론화되는 각 프레임의 확산 패턴은 서로 달랐다. 확산 초기에는 보수 시각의 심의위원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과 진보 시각의 표현자유 제한 항의 프레임이 경쟁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대립 관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중기부터는 표현자유 제한 항의 프레임 대신 이와 보완적인 방통심의위 심의기준 비판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중도 관점의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등장 시점도 늦고 확산 비중 역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시민 블로그의 포스팅에서 먼저 등장해 역속성의제설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뉴스 미디어의 의견 프레임을 다변화시키는 특징이 관찰됐다. 후기엔 연관된 특정 사건의 발생에 맞춰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만 주로 확산을 지속했다.

이 같은 확산 패턴의 추적은 뉴스 확산을 통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과 분화가 상당히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빠르게 확산되는 의견 프레임이 시기별로 서로 다르면서도 보수와 진보 의견이 주도권을 다투는 가운데 중도 의견이 열세로 존재하는 경쟁적인 의견 확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론 구도 역시 찬반 대립 또는 다수 대 소수 갈등 같이 단순화되기 보다 몇 개의 여론 프레임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구성 비율 또한 상이한 양상을 드러냈다. 다양한 뉴스 생비자의 담론적 상호작용으로 하위 공중집단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 과정의 복잡한 담론

적 역동성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정치 여론조사의 관행대로 개인 반응의 집계
에 기초한 통계수치로서 여론은 지나친 단순화가 초래하는 가공물(artifact)이라
는 허상의 위험이 있다(Bishop, 2004).

둘째, 뉴스 확산의 연결망 분석에 따르면 같은 프레임 특성을 지닌 뉴스 게
시물 간의 인용 경로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특정 견
해를 전파하는 집단적 의미구성의 특성이 발견됐다. 확산 연결망을 통한 여론
구조의 분화를 검토하기 위해 지수 무작위 그래프 모형(ERGM)을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스의 온라인 확산이 유사한 견해와 주장을 표명하고
공유하는 의견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
했다. 하위 시스템 수준의 약한 구성집단 분석 역시 온라인 뉴스 게시라는 담
론적 참여를 통해 공공 이슈에 적극 관여하는 공중이 배타적 의견집단으로 경
쟁적으로 조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질적 의견 프레임만으로 결속된 소규
모 구성집단이 이질적 프레임 간의 인용 관계를 허용하는 구성집단보다 수적
으로 훨씬 많다는 점에서 뉴스 확산 연결망은 정치적 이견 간의 대화와 토론
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여론 형성의 핵심은 공중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적 반응, 곧
사회적 의미구성으로서 여론이 시민사회의 담론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이다.
뉴스 확산의 연결망 분석은 뉴스의 인용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의견 연결망의
구조적 분화로써 온라인 공중집단의 사회적 조직화를 보여준다. 공공 이슈를
둘러싼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되는 공중집단
은 구성원들의 의견집합으로서 여론 프레임이 발현되는 사회적 토대다. 하지
만 확산 연결망의 구조적 성격은 이증성을 띤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적 논쟁과 토론에 담론적으로 참여할 사회적 숙의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식견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상
이한 정치적 관점과 견해의 상호 교류를 구조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이들을 집
단적으로 극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확산 결과로서 여론 프레임의 지형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 채널

의 역할이 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견집단 내의 여론 형성에는 전통매체가 의견 결속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의견집단 간의 연결 관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의 전달과 상호 노출에는 블로그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된 차이가 발견됐다. 그런데 일반 시민의 블로그는 의견집단 간의 이견 노출과 상호 교류에는 뛰어나지만 여론 형성의 주도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 미디어, 특히 전통매체는 의견 결속의 중심점 역할로서 공중집단의 여론을 선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정교적 프레임에 의존한 특정 의견의 확산에 따라 고립된 속의와 여론 극화를 유발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함의는 공공 이슈를 논의하는 온라인 공론권(online public sphere)의 재구조화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식견 있는 시민공중(블로거)의 의견지도자적 품성과 역할을 강화시킬 실질적 논의와 더불어 정치적 이견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이해갈등을 조정할 언론매체의 속의 능력 제고가 함께 요청되기 때문이다(Burt, 1999; Price, 2006; Sunstein, 2001; Weimann, 1994; Wojcieszak & Mutz, 2009).

한편, 뉴스의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 변용의 패턴도 확산 사이트 유형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정보의 전달에 치중하는 전통 뉴스매체에선 해석 논평과 감정 표출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에 비해 온라인 매체의 뉴스 게시물과 일반 시민의 블로그 포스팅에선 해석 논평과 감정 표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 변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객관 저널리즘의 기사작성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 논쟁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블로거의 자유분방한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민 블로거의 글쓰기 특징과 블로그 포스팅에서 관찰되는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온라인 확산에서 관찰되는 내용 변용의 구체적인 형식(정보 추가, 해석 논평, 감정 표출)과 여론 프레임의 형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산 과정의 내용 변화가 여론 프레임의 발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는 추후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다.

하나의 씨앗뉴스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여론의 정치적 이슈로 증폭된 박경신 블로그 논란을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의 확산 과정을 추적한 결과, 같은 의견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하위 공중집단의 형성을 통해 여론 프레임이 경쟁적으로 분화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견집합으로서 여론이 뉴스 확산을 통한 온라인 공중집단의 조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공중집단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확산 연결망의 구조화에 영향을 미칠 선행 요인들을 탐색하는 과제로 이어진다. 뉴스 확산을 통해 형성된 배타적 의견집단으로서 하위 공중집단이 지닌 커뮤니케이션 특성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의견의 품질과 연관성 깊은 논증방식(Cappella, Price, & Nir, 2002)을 고려해 공중집단의 메시지 특성과 여론 지형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립자로 존재하는 상당수 시민 블로그가 온라인 여론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역시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하위 여론으로 존재하다 관련 이슈가 재등장할 때 활성화되면서 특정 의견의 증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변화를 유발하는 잠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의 전체 확산 패턴은 확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는 뉴스 확산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시공간적 환경, 사건(이슈) 성격, 확산 채널 유형, 뉴스 확산자(채택자) 성향 등을 꼽는다(Kim, et al., 2008).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개별 확산 요인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뉴스 확산 패턴은 물론 그 결과로서 여론 지형이 구조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뉴스 확산 과정에 내재한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여론 지형 구축에 초래할 영향력에 대해선 아직 관련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한 바 없다(Watts & Dodds, 2007). 후속 연구는 온라인 뉴스 확산을 결정하는 개인적, 구조적 요인과 뉴스 확산을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여론 지형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제를 인과

모형으로 세워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경모(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pp.7-37.
- 김경모·정은령(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저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pp.109-136.
- 이준웅(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pp.133-162.
- 임성환 · 김상욱 · 박선주 · 이준호(2009). 블로그 연결망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파워 유저의 파악 방안. 『정보과학회지』, 36권 6호, pp.411-421.
- 홍주현(2010). 인터넷 토론 환경이 여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터넷 여론 모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pp.603-643.
- Agarwal, N. & Liu, H. (2009). *Modeling and data mining in blogosphere* Morgan & Claypool.
- Barnett, G. (2011). Mathematical models of the diffusion process. In A. Vishwanath & G. Barnett (eds.).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 communication science perspective* (pp.103-122). New York: Peter Lang.
- Bishop, G. (2004). *The illusion of public opinion: Fact and artifact in American public opinion polls* Oxford, UK: Rowman & Littlefield.
- Blumer, H. (1948).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pol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3, 542-554.
- Bruns, a. (2007). Prodisusage: Towards a broader framework for user-led content creation. *Proceedings of Creativity & Cognition 2007*, 99-105.
- Burt, R. (1999). The social capital of opinion leader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6, 37-54.

- Cappella, J., Price, V., & Nir, L. (2002). Argument repertoire 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opinion quality: Electronic dialogue during campaign 2000. *Political Communication*, 19, 73-93.
- Conover, M., Ratkiewicz, J., Francisco, M., Gonçalves, B., Flammini, A., & Menczer, F. (2011). Political polarization on twitter.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89-96.
- Converse, P. (1987). Changing concept of public opinion in the political process. *Public Opinion Quarterly*, 51, S12-S24.
- DeFleur, M. (1987). The growth and decline of research on the diffusion of the news, 1945-1985. *Communication Research*, 14, 109-130.
- Delli Carpini, M., Cook, F. & Jacobs, L. (2004). Public deliberation, discursive participation, and citizen engagement: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315-344.
- Deuze, M.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 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 203-230.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Fruchterman, T. & Reingold, E. (1991). Graph drawing by force directed placement. *Software-Practice and Experience*, 41, 1129-1164.
- Gamson, W. (1988). A constructionist approach to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Symbolic Interaction*, 11, 161-174.
- Gamson, W.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amson, W. & Lasch, K.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Shapiro & E. Yuchtman-Yaar (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pp.397-415). New York: Academic.
- Herbst, S. (1993). The meaning of public opinion: Citizens' construction of political reality.

Media, Culture & Society, 15, 437-454.

- Im, Y., Kim, E., Kim, K., & Kim, Y. (2010). The emerging mediascape, same old theories? A case study of online news diffusion in Korea. *New Media & Society*, 13, 605-625.
- Kelly, J., Fisher, D., & Smith, M. (2009). Friends, Foes, and Fringe: Norm and structure in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In T. Davies & S. Gangadharan (eds.). *Online deliberation: Design, research, and practice* (pp.83-93). CSLI Publications.
- Kim, J., Wyatt, R.,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 361-385.
- Kim, K., Im, Y., Kim, E., & Kim, Y. (2008). What do people do with 'seed news'?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news diffusion in cyberspace. Paper presented to the AEJMC, Chicago, IL. USA.
- Krassa, M. (1988). Social groups, selective perception, and behavioral contagion in public opinion. *Social Networks*, 10, 109-136.
- Krippendorff, K. (2005).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opinion. In E. Wienand, J. Westerbarkey, & A. Scholl (eds.). *Kommunikation über Kommunikation: Theorie, Methoden und Praxis* (pp.129-149). Wiesbaden: VS-Verlag.
- Loosen, W. & Schmidt, J. (2012). (Re-)Discovering the aud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audience in networked digital medi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 867-887.
- Meyer, G. (2004). Diffusion methodology: Time to innovat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9, 59-59.
- Monge, P. & Contractor, N. (2003). *Theories of communication network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oy, W., Mrvar, A., & Batagelj, V. (2005). *Exploratory social network analysis with Paj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ce, V. (2006). Citizens deliberating online: Theory and some evidence. In T. Davis & B. Noveck (eds.). *Online deliberation: Design, research, and practice* (pp.1-22). CSLI

Publications.

- Price, V. (1992). *Public opinion*. Newbury Park, CA: Sage.
- Price, V. (1989). Social identification and public opinion: Effects of communicating group confli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 197-224.
- Price, V. (1988). On the public aspects of opinion: Linking levels of analysis in public opin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5, 659-679.
- Price, V. & Cappella, J. (2002). Online deliberation and its influence: The electronic dialogue project in campaign 2000. *IT & Society*, 1, 303-328.
- Price, V., Nir, L. & Cappella, J. (2005a). Normative and informational influences in online political discussions. *Communication Theory*, 16, 47-74.
- Price, V., Nir, L. & Cappella, J. (2005b). Framing public discussion of gay civil un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69, 179-212.
- Price, V. & Roberts, D. (1987). Public opinion processes. In C. Berger & S.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pp.781-816). Newbury Park, CA: Sage.
- Rogers, E. (2003). *Diffusion of innovation* (5th ed.). New York: Free Press.
- Rogers, E. (2000). Reflections on news event diffusion research.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561-576.
- Rosengren K. (1973). News diffusion: An overview. *Journalism Quarterly*, 50, 83 - 91.
- Shumate, M. & Palazzolo, E. (2010). Exponential random graph (p*) models as a method for social network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4, 341-371.
- Sunstein, C. (2001). *Republic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sagkias, M., de Rijke, M., & Weerkamp, W. (2011). Linking online news and social media. Paper presented to the WSDM'11. Hong Kong, China.
- Valente, T. (2005). Network model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In P. Carrington, J. Scott, & S. Wasserman (ed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pp.98-1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ente, T. (1995). *Network models of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Cresskill, NJ: Hampton

Press.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D. & Dodds, P. (2007). Influentials, network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441-458.
- Weenig, M. & Midden, C. (1991). Communication network influences on information diffusion an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734-742.
- Weimann, G. (1994). *The influentials: People who influence peopl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jcieszak, M. & Mutz, D. (2009). Online groups and political discourse: Do online discussion spaces facilitate exposure to political disagre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9, 40-56.
- Wyatt, R., Katz, E., & Kim, J. (2000). Bridging the spheres: Political and personal conversation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71-92.
- Yardi, S. & Boyd, D. (2007). Dynamic debates: An analysis of group polarization over time on twitter.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30, 316-327.
- Zhou, Y. & Moy, P. (2007). Parsing framing processes: The interplay between online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Journal of Communication*, 57, 79-98.

최초 투고일 2012년 10월 20일

논문 수정일 2012년 12월 0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2월 07일

<부록> '박경신 블로그 논란' 이슈의 여론 프레임 유형

■ 심의위원 개인자질 비난 프레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게재한 사건은 그가 심의위원직을 수행할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음란물로 판정받아 삭제됐던 성기 사진도 모자라 여성 음부가 묘사된 작품을 아무렇게나 올려 사회적 물의를 초래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그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등 자격미달의 인물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그런 박 위원이 한국민의 정서에 맞는 않는 음란한 사진과 그림을 올려 고의로 정치적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해 박 위원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방통심의위가 법적 절차를 거쳐 그를 해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방통심의위 관련법을 위반한 박 위원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런 문제성 인물을 추천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번 기회에 당 내부의 인사추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 방통심의위 심의기준 비판 프레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 게시물을 올린 사건의 본질은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심의 기준과 적절한 사전 고지도 없이 인터넷 공간의 개인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데 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정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논리를 적용한 지나친 행동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음란물의 정의도 없이 시민의 게시물을 차단, 삭제함으로써 일방적 심의에 따른 의사 표현의 과잉 제한과 감시라는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고, 심의위 결정에 반발한 박 위원이 블로그에 해당 사진과 유사한 수위의 예술작품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이 심의가 아니라 사실상 '검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크다. 이런 판단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법적 기준과 근거 없이 인터넷에서 함부로 시민 개인의 의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 차단하거나 규제해야 할 경우라면 게시자에게 먼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현의 자유 제한 항의 프레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의 미니홈피를 검열한 뒤 게시물을 음란물로 판단해 삭제 조치하고 블로그를 차단하자 이 결정에 반발한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기 블로그에 삭제됐던 사진과 함께 유사한 수위의 예술작품을 올려 국가기관이 자행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관이 음란물 심의라는 이유로 개인 블로그를 감시, 제재하는 처사는 검열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행위다.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국가와 정부기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란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만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통심의위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합리적 기준을 세울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부터 고치는 일이 더 시급하다.

■ 예술 vs. 음란 논란 프레임

이 사건의 핵심은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기 블로그에 여성 음부가 그려진 명화 '세상의 근원'을 올린 것을 두고 '예술작품이나 음란물(성인물)이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박 위원이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남성 성기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내린 뒤 의도적으로 수위가 비슷한 쿠르베의 예술작품을 올린 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세상의 근원'에 앞서 올렸던 남성 성기사진은 음란물로 볼 수도 있고, 더욱이 이것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것은 박 위원의 잘못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예술작품까지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음란물로 시비 걸려는 것도 문제가 많다. 우리사회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19세기적 사고로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재단하려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조치는 그 발상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음란물과 예술작품을 구별 짓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상징장치의 의미론적 구조: 사태정의 → 원인진단 → 책임귀인(도덕적 평가) → 해결책(대안) 제언

Online news diffusion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 A case study of 'controversy over Park Kyung Sin blog posting'

Kim, Kyungm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online news diffusion process in which a couple of public opinion frames are diversified based on social groupings of issue publics who are discursively participating in public problems. A political issue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in the Internet, the so-called 'controversy over Park Kyung Sin blog posting', has been selected for a case study employing network analysis, fram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individual news behaviors that upload news posting online emerges news diffusion network in which public discussions and debates are developed into social organization of opinion groups, each arguing collectively a particular public opinion in terms of socially constructed narrative frames. This suggests that online news diffusion over time be a crucial social mechanism by which attentive issue publics are socially organized, yielding the formation of diverse public opinions. Some implications of relationship between news diffusion proces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in the Internet are discussed.

Key Words: online news diffusion, citation/scraping network, online public, public opinion fram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in the Internet